

연쇄 살인범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분석

-온보현 부녀자 납치·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오 윤 성*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범죄심리학적 분석 |
| II. 연쇄살인에 있어서 심리학적 배경 | V. 결 론 |
| III. 사건 전개과정 | |

I. 서 론

인간의 생명은 인간 실존의 기본 가치로 인간 존엄과 인격 발현의 기본적 가치 존재이다. 따라서 범규범은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반 인류,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신진규는 살인을 가해살인과 과실살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범죄 행위의 발생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가해자의 공격행위 또는 그 습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¹⁾

한몫을 잡기 위해 선량한 사람들을 납치 살해 암매장하는 사례, 단지 세상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상하는 무 동기 살인, 사소한 시비가 살인에까지 이르는 충동적인 살인, 철모르는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비정한 살인 등 살인 범죄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연쇄 살인 범죄는 살인 행위의 상습성과 실행의 사전 계획성 등으로 사회에 물의와 충격을 던져 주는 범죄이다. 연쇄 살인범의 발생은 이미 서구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그 발생 빈도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순천향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경찰행정학과 교수

1) 신진규, "우리나라에 있어 각종 살인사건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법학논고, 제5집, 경북대학교, 1989, pp. 43-78; 김상희 외,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1-07), p. 34.에서 재인용.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 발전의 급격한 발전의 이면에서 왜곡되고 소외되어 가는 우리의 이웃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혼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더불어 비뚤어진 인성이 자리잡아 갈 때 이러한 연쇄 살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쇄 살인범과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연쇄 살인범에 대한 심리적 분석이 왜 필요할까? 그 이유는 지금보다 오히려 영화 등의 드라마를 통한 연쇄 살인범의 모방,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서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1994년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단독 연쇄 살인범 온보현 사건에 주목하여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성장 배경과 범행 과정을 통해 단독 연쇄 살인범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당사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²⁾되었기 때문에 주 대상인 범인에 대한 직접 면담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로 당시 범인의 기록과 언행, 사건 기록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면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겠다.

II. 연쇄 살인에 있어서 심리학적 배경

1. 공격성 이론

1) 공격성과 외적 동기

사람이나 동물의 행동에 대하여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이러한 행동의 동기에 대한 접근은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 행동은 외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Kenneth Moyer(1976)는 공격적 행동을 유발시키는 수많은 자극을 파악하여 그 자극에 따라 공격적 행동을 유형별로 구분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육식동물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격적 행동의 하나가 사냥감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predatory aggression)이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배가 고프지 않는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배

2) 온보현은 1995년 11월 5일 자신이 심리적 경쟁 대상으로 삼았던 지존파와 같이 반인륜적·반사회적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형태의 공격적 행동은 유기체가 어떤 혐오적인 자극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irritable aggression)이다.³⁾ 또 하나의 공격적 행동은 모성적 공격 행동(maternal aggression)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는 공격성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모성적 공격 행동은 특이한 현상이다.

그리고 인간의 공격성을 결정해 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문화이다.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특성, 즉 문화가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공격성과 과격성의 정도를 결정해 준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의 정도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2) 좌절과 공격성

인간에게 있어서 좌절은 공격 충동을 일으키고, 이 충동은 공격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상해를 주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며 타인을 때리는 것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포함된다.⁴⁾ 좌절은 감정적 분노를 의미한다.⁵⁾ 즉 분노의 주요 원천은 욕구 좌절이다. 욕구 좌절은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이 방해되거나 못하게 되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욕구 좌절의 영향은 일상생활에서 폭 넓게 찾아볼 수 있다. 공격적 행동의 발생에는 항상 욕구 좌절의 존재를 전제하고 반대로 욕구 좌절의 존재는 항상 어떤 형태의 공격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욕구 좌절-공격 가설이다.⁶⁾

감정적 분노의 표출은 급격히 분산되거나 그것은 분노를 야기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쉽게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⁷⁾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분노가 공격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양자를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 분노는 내적으로 좌절된 감정의 구체적 느낌이라면 공격은 분노의 외형적 표현이며 동시에 투쟁 욕구와 직결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격은 분노 표현의 행동적 성향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공격 충동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막히거나 또는 심리적, 생리적 불만족한 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유발된다.⁸⁾ 인간에게 있어서 좌절로 인한 감정적 분노는 공격적 태도와 행동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고통스러

3) 예컨대, 한 쌍의 쥐에게 고통스러운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서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데 인간에게도 이와 유사한 공격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한다; 김동기 외, 「심리학 개론」(서울: 양서원, 2000), pp. 85-86.

4) 상계서, p. 6.

5) 이상현, 「범죄심리학」(서울: 법문사, 1994), pp. 129-130.

6) 김동기 외, 전계서, p. 394.

7) 이상현, 전계서, p. 130.

8) 김동기 외, 전계서, p. 446.

운 대우, 보상의 지연, 개인적인 모욕, 방해 등의 감정적 분노는 공격적인 행위를 일으키기 쉬운 조건이다.⁹⁾

이 좌절-공격 이론에 의하면 공격성은 '대체된 공격(displaced aggression)' 형태로 좌절시킨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좌절시킨 당사자에게 공격 행동을 하는 것을 '직접적인 공격(direct aggression)이라고 한다.¹⁰⁾ 즉 내성적으로 내면에 심한 공격 형태를 형성하나 분노감을 표현하기 곤란한 여건 하에서 폭언이나 상해, 동물 학대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공격 메커니즘 욕구불만으로 인한 공격 행동으로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사회학습과 공격성

사회학습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공격적 행동은 강화와 공격적 모델 모방을 통하여 학습된다고 제한하였다(Bandura, 1973).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공격 행동에 대해 강화되고 보상되고 있다. 이런 경우 공격성은 직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모방 과정을 통하여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모델로 되어 있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아동은 공격적 모델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보상과 강화를 기대하게 된다.¹¹⁾

4) 가정 해체와 부모-자녀 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 청구의 절대 건수는 1985년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한 뒤 계속 1993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1985년까지 남편 쪽에서 아내의 부정을 빌미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1990년대부터는 아내 쪽에서 남편의 부정을 문제삼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아내들도 더 이상의 남편의 부정을 간과하지 않는 추세라고 해석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혼의 주류를 이루는 전후 세대들의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¹²⁾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이혼, 별거, 가출 및 기아의 증가와 같은 가족 문제는 가족 갈등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¹³⁾

9) 이상현, 전개서, p. 130.

10) 상계서, p. 40.

11) 이와 관련하여 반두라 등은 보보 인형 실험이나 필름을 통한 모방 실험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중요한 사회적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었다.

12) 한국 가족 학회, 「한국 가족 문제-전망과 진단」(도서 출판하우, 1995), pp. 67-68.

13)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3), p. 164.

부모 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 전면적이고 보편적 영구적 관계이다. 부모 자녀 관계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화의 기본적 교육의 장(場)인 가정 환경 중에서도 인적인 환경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더욱이 아버지의 잘못(외도)로 인한 어머니의 자살 등은 자식에게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장 지배적이고 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는 부자 관계¹⁴⁾를 가장과 후계자의 성격에서 원수적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기의 불안 장애는 예기치 않았던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부모와의 갈등, 성 문제에 관한 죄의식과 같은 내면적 갈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¹⁵⁾

5) 좋지 못한 조건(adverse conditions)과 범죄

좋지 못한 조건(adverse conditions)이란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조건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빈곤, 실직, 불평 같은 조건 등의 범죄 행동의 원인으로 지적된다.¹⁶⁾

불공평성(inequity)의 지각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많은 연구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존파가 그랜저를 몰았던 사장과 외제차를 소유했던 어느 여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들이 부유층이라는 점과 자신들이 이러한 사람에 비해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들의 얼굴에 사회의 불공정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Quinney(1966)는 불공정이 범죄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으며, Maume(1989)는 불공정성은 범죄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학자들(Braithwaite, 1979; Loftin & Hill, 1974; Messner, 1980)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⁷⁾

2. 정신 역동적 이론

1)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동기를 중요시하는 성격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다.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적 결정론과 무의식적 동기를 강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가정

14) 김양희, 전계서 pp. 210-211.

15) 상계서, p. 314.

16) 홍성열,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0), p. 202.

17) 상계서, pp. 203-204.

을 설정하였다. 첫째,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둘째, 인간이 행동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본능적 충동에 의해 지배된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강조하면서 성적 및 공격적 충동들이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인이 된다는 것과 특히 아동기의 성적 충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였다.¹⁸⁾ 프로이드는 원초아의 에너지가 선천적 요구인 무의식적 본능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원초아를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구분하였다. 죽음의 본능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는 주로 자기 파괴나 자살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다. 본능에는 그 근원, 목적, 대상 및 강도의 네 가지 측면이 있다. 본능의 근원은 긴장감을 주는 신체적 요구나 흥분이며, 본능의 목적은 요구를 충족시켜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본능의 대상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 즉 요구 충족의 도구를 말한다. 본능의 강도는 요구 충족을 위한 압력의 강도, 즉 요구 충족에 사용된 에너지의 강도이다.

2) 융(Jung)의 분석 심리학

프로이드가 성의 본능을 강조하여 자신의 이론을 전개한 반면 융은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성격의 일반적인 태도 유형을 제안하였는데, 외향성의 사람은 외부 세계에 관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다른 사람과 사건에 흥미를 느끼는 반면, 내향성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적, 주관적 세계에 더 관심이 많으며 비사교적이고 타인과의 교제에서 신뢰감이 부족한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으나 한 쪽이 강할 때 한 쪽은 잠복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융은 인간을 합리적-비합리적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사고와 감정의 심리적 기능에 의해 조절하며 의사 결정시에도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해 지배되고 정서적 요인과 가치판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비합리적인 사람은 감각이나 직관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3) 아들러(Adler)의 개인 심리학

아들러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성적 본능에 둔 반면 사회적 충동을 강조하였는데, 인간을 출생의 순간부터 인간관계에 노출되며 일생 동안 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로 생각하고 인간을 본능적 충동의 처분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 계획을 창조하며 자신의 목적 성취를 도와 줄 특질, 태도 및 능력을

18) 김동기 외, 전거서, pp. 252-253.

발전시키는 존재로 보았다. 아들러는 인간의 공통적인 기본 동기를 열등감에 기초한 '우월에의 추구'라고 하였다. 이러한 열등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해 아동은 우월감, 충족감 및 권력감을 성취하게 해 주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을 지배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일단 목표가 선택되고 나면 모든 개인의 행동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방향 지워지며 목표를 향한 투쟁은 인생의 반동력을 제공해 준다. 이외에도 개인의 발달은 개인이 소속된 문화권 즉 환경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이 경험한 결과가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 방식, 교사의 가치관이나 교육 방식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얻은 개인적 경험은 지능, 성격, 사회성, 도덕성, 가치관 및 자아 개념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¹⁹⁾

III. 사건 전개 과정

1. 범행 준비

전직 택시 기사인 은보현은 1994년 8월 16일과 9월9 일 2차례에 걸쳐 택시를 훔친 뒤 여자 승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하기 위하여 택시 손잡이를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차의 출입문을 조작한 뒤 범행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 판을 변조하였으며 암매장할 구덩이를 사전에 파놓고 범행 장소도 미리 예정된 장소를 선택하는 등 납치-성폭행-살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또한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훔치거나 변조하여 가짜 주민등록증과 경찰서 청소년 선도 위원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하였다.

2. 범행 및 범죄 수법

범인은 훔친 택시의 번호 판을 바꾸고²⁰⁾ 가짜 신분증과 망치, 시너 통을 준비해 다니며 택시에 혼자 탄 여자 승객들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살해하는 무차별적인 범죄를

19) 김동기외, 전게서, p. 286.

20) 피해자중 한 명인 업모양은 범인이 몰던 차량이 서울1바8695 은회색 에스페로 택시였다고 말했으나 조사 결과 이 택시는 K운수 소속 의 서울1바3605택시임이 확인됐고, 권씨를 납치할 때 사용된 택시도 서울1바7237을 서울1바1287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은은 택시를 훔친 뒤 망치와 붓으로 번호 판을 바꾸어 왔으며 특히 1과 3을 7과 8로 고쳐 사용하였다.

자행하였다. 여자 승객을 납치한 뒤에는 성폭행을 하기 위해 미리 야산 등에 구덩이를 파놓았으며, 실제 피해자들을 암매장할 것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운전중 하다 갑자기 흥기를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안전띠와 접착 테이프를 좌석에 묶어놓았고 피해자인 권모양의 경우 1일 서울 송파구 백제 고분로 지하 차도 앞에서 온의 택시를 탄 후 전북 김제군 선암리 영천부락 뒤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깊이 1m, 폭 1m 길이 2m의 웅덩이 안에서 손발이 묶인 후 암매장 당할 뻔했으나 애들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며 애원, 온이 "2시간 이후 돌아오겠다"고 자리를 뜬 뒤 가까스로 끈을 풀고 탈출, 목숨을 건졌다.

3. 신분 노출 경위 및 지명수배

온은 송파구 풍납동 소재 신한은행 현금 자동 출납기에서 납치 살해한 허모 양의 신용카드 현금을 인출하다 폐쇄 회로 TV카메라에 얼굴이 찍혔으며 경찰은 이 사진을 토대로 수사를 편 결과 권씨와 엄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고 권모 씨가 당시 빼앗겼던 1천 2백만원 중 1백만원권 수표를 역추적, 온이 실명으로 이서한 사실을 확인해 온의 신원을 밝혀내고 경찰은 범인을 1994년 9월 27일 전국에 지명 수배하였다.

4. 자수에 따른 송치 및 기소

1994년 9월 27일 20대 여 회사원 납치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 지명 수배된 범인은 27일 밤 서울 서초 경찰서에 자수, 실종된 허모양(당시 26세 · 회사원)을 포함, 모두 6명의 부녀자를 납치한 뒤 이중 허모양과 박모양(당시 24세 · H특수학교 교사)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2일 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두란노 문화 센터 앞길에서 허양을 납치한 뒤 바로 경기도 신갈 근처 야산에서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한 혐의로 지명 수배되었다가 27일 밤 경찰에 자수한 온보현(37.서울 도봉구 수유1동)은 경찰에서 그 동안 모두 6명의 부녀자를 납치한 뒤 이중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하였다.

당시 부녀자 연쇄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용산 경찰서는 28일 실종된 허모양(26.여. 회사원)의 시체 수거와 함께 이날 범인 온보현(37. 전 택시 기사. 폭력 등 전과 8범)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살인 및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10월 6일 이 사건을 범인 온보현(37)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서울지검 강력부에서는 10월 14일 온보현(37)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²¹⁾.

5. 형사 판결

동년 11월 15일 서울 형사 지법 합의25부(재판장 김주형, 부장판사)는 14일 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너무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살인을 해 유명해진 후 증오해은 아버지의 비행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동기 역시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온 피고인은 3분에 걸친 선고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었다. 한편 법원은 지존파에 이어 이번 재판도 집중 심리제를 적용, 기소된 지 1개월만에 1심을 마쳤으며 서울 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역시 강도 살인죄 등을 적용,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IV. 범죄심리학적 분석

종래 범죄자는 그 범죄로 의해 어떤 이득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가 범죄원인을 무동기로 분류하는 것은 그 범죄에 의해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구미의 경우에도 1960년 이전에는 이런 범죄는 드물어 극히 소수의 경우에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새디스트적인 흉악 행위의 급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²²⁾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의 '돌발성'이다. 결국 살인자들은 희생자의 목숨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숨도 문자 그대로 던지고 있는 속성을 말한다.

흥미 있는 하나의 열쇠는 '동기가 없는' 살인범들의 대부분은 지적 수준이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이었던 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찰스 맨슨, 이안 블레이디, 멜빈 리스, 존 프레이저, 해리 란햄, 테드 반디 등이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요인은 누구나 그들이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회가 '자기를 부당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그들은 느끼는 것이다.²³⁾ 이것이 그들을 되풀이하여 동기가 없는 분노로 몰고 갔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에게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회는 어딘가 부패해 있으며 범죄는 이 분노에서

21) 검찰은 온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에 지존파에게 적용했던 대로 집중 심리제를 적용,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다.

22) 콜린 윌슨외, 「현대 살인 백과」(서울 : 범우사, 1990), pp. 10-20.

23) 자신을 둘러싼 주위가 자신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사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일 수도 있으나,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주위로부터 과소평가당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일 때)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을 자기의 마이너스 이미지라고 한다.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기 시작한다.

사르트르가 이야기한 마술적 사고(思考)란 모래에 목을 치박으려고 몸부림치는 칠면조처럼 그 목적을 달성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비논리적인 사고이다. 인간은 모두 자유와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막상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운다. 주위에서 자기를 대신할 속죄양을 찾는다. 정치가나 경찰이나 체제 자체에 주목하게 되며 그것에다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의 마술적 사고는 그다지 해로운 것이 아닌 것이다. 마술적 사고의 작용은 흔히 능동적 범죄 즉 개인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자기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력이나 범죄에 이르는 사고 과정의 성격을 관찰할 때 반드시 목격하게 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탓해야 할 대상을 찾는 능동적 인간 심리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인류의 고뇌와 자신의 개인적인 불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이다. 범죄 재구성은 범죄실행을 둘러싸고 있는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용의자의 자백, 목격자의 진술, 살아있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물리적 증거의 해석과 검증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²⁴⁾

1. 성장 배경과 범행 동기의 분석

1) 성장 배경

은은 전북 김제군 금구면 선암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81년 가출, 서울로 올라와 버스와 택시 운전사로 일해 왔고 92년부터 도봉구 수유동 D여관 505호에서 월 25만원에 장기 투숙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가출 당시 은은 부모와 다투다 아버지(67)를 때리고 나는 부모도 없다 는 혈서까지 써놓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²⁵⁾

은이 무고한 부녀자들을 납치,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동기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어머니가 자살하면서 가정이 파탄된 데 기인하였다. 은은 사건 발생 13년 전인 1981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바람에 어머니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자 아버지에게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2) 범행 동기

24) Brent Turvey,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Second Edition*, Academic Press, 2002. p. 81.

25) 조선일보, 1994. 9. 28. 30-31면.

온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1994년 8월 17일 할머니가 사망해 고향에 내려갔다가 미워하던 아버지 다시 만났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어 고향에 오지 못하도록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자살할 생각이었으나 자살 대신 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흉악 범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세상이 각박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같은 사람이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 어차피 죽기 전에 무작정 죽이려 했다. 처음에는 50명까지 목표로 삼았으나 내 나이(자신의 연령)인 38명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는 무차별 무동기적 살인 의지를 내보인다.²⁶⁾

3) 분석

부모 자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 전면적이고 보편적 영구적 관계이고 개인의 인격 형성과 사회화의 기본적 교육의 장(場)인 가정 환경 중에서도 인적인 환경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든지 아버지의 잘못(의도)으로 인한 어머니의 자살 등은 자식에게 잊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장 지배적이고 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는 부자 관계²⁷⁾를 가장과 후계자의 성격에서 원수적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온은 이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치명적인 심적인 상처(trauma)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장 결정적 원인을 아버지로부터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기의 불안 장애는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좌절은 공격 충동을 일으키고, 이 충동은 공격 행위를 유발하게 되는데 자신의 내면에서 축적된 좌절은 감정적 분노로 변화되고 이러한 공격성은 ‘대치된 공격(displaced aggression)’ 형태로 좌절시킨 사람 즉 아버지가 아닌 다른 불 특정인에 대해 나타나게 되는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닥쳐야 할 대상을 찾는 능동적 인간 심리와 개인적인 불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이 엿보인다. 또한 자신의 나이와 연관하여 살인 예정 인원수를 결정하는 범죄성을 보이고 있다. 즉 분노의 주요 원천은 욕구 좌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온의 좋지 못한 조건 역시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같은 사람이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다는 그의 범행 동기는 그가 처해있는 환경이 소위 좋지 못한

26) 원한을 살 일이 있는 특정 대상도 아니고, 돈 욕심이나 치정 같은 동기가 뚜렷한 것도 아닌 불특정 무동기의 범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7) 김양희, 전계서, pp. 210-211.

조건(adverse conditions)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조건이 아님을 의미하며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빈곤하였으며 당시 그의 실직한 상태 등이 이러한 불평을 더욱 가속화하여 자포자기적 심정에서 범죄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2. 살인 단계에 있어서 심리 분석²⁸⁾

1) 범죄 이전 단계

온은 폭력 전과 2범으로 전북 김제군 금구면 선암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81년 가출, 서울로 올라와 버스와 택시 운전사로 일해 왔고 92년부터 도봉구 수유동 D여관 505호에서 월 25만원에 장기 투숙해 왔다. 가출 당시 온은 부모와 다투다 아버지(67)를 때리고 나는 부모도 없다는 혈서까지 써놓고 나왔으며 94년 4월 S산업에 입사, 보조 기사로 일해 오다 지난 6 월 동료 등에게서 3백50 여만원을 빌린 후 자취를 감췄다. 본 사건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되었는데 우선 택시를 훔쳐 번호 판을 바꾸고 택시 출입문을 안에서 못 열게 미리 조작하였으며 차량 번호판도 변조하였다. 또한 가짜 주민등록증과 경찰서 청소년 선도 위원 신분증, 망치 시너 통 을 준비하였고 사전에 사체를 암매장할 구덩이를 파놓는 등 준비한 점은 계획 살인²⁹⁾의 형태에 해당된다.

2) 범죄 실행 단계

온은 납치 승객 6명에 대한 범죄 행각을 드라마³⁰⁾를 쓰듯이 적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별로 범행 시간과 이름, 나이, 살해-미수여 부 등 범행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도표³¹⁾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목을 노끈으로 졸라 나무에 묶은 다음 테이프를 입을 막

28) 이 사례는 동기 없는 살인(non specific motive killing)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를 무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없는 아무런 원한 관계나 이욕 등의 동기 없이 피해자들이 선택되었다.

29) 살인은 계획성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계획 살인과 우발 살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30) 통상 연쇄 살인은 두려움, 스틸, 흥분 상태를 거쳐 1차 범행 후 일정 기간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폐쇄적, 처벌 회피의 확신이 있는 뒤 자신의 환상에 반영하고 차후 범죄에 활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31) 온보현의 범행일지 요약

- 8월5~15일사이: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서 택시를 절취
- 8월28일~9월초: 강동구 암사동서 20대 여자 승객 납치, 승객 탈출, 범행 미수
- 9월11일 저녁7시반경: 구로구 독산동에서 엄모양(21)을 납치, 성폭행한후 강원도 횡성으로 끌고 가 나무에 결박
- 9월12일 저녁9시반: 서초구서초동서 허수정양납치, 13일 새벽 살해후 시체 유기
- 9월13일 오전5시30분: 허모양을 테이프, 끈 이용하여 묶은 후 약 30분 지켜보니 풀고 도망칠 것이

고 검은 비닐 봉지를 머리에 씌운 후 30분 동안 기다렸으나 숨지지 않아 주변에 있던 헌 삼을 가져와 머리와 무릎을 여러 차례 내리친 뒤 30여분간 지켜보다 하산하였다.³²⁾

3) 시체 유기 및 증거 인멸 단계

온은 피해자를 전북 김제군, 강원도 횡성, 김천 등으로 끌고 가 인근 야산의 나무에 결박하고 성폭행 하거나 범행 장소를 이동, 시체 유기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마지막 피해자인 박양을 차안에서 살해한 뒤 금릉군 아포면 경부 고속 도로상에서 차를 세우고 오른쪽 앞문을 열어 3m아래 농로로 밀어 떨어뜨린 후 유기하는 등 치밀하지 않게 범행을 마무리짓는 행동을 보인다.

4) 범행 후 행동단계

통상 연쇄 살인범은 알리바이를 조작하거나 범죄 실행의 회상 및 환상 보강을 거쳐 수사 기관 움직임 파악 및 대비하는 수순을 거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온은 모두 6차례의 범행 행각을 일자와 성명 나이 비고 등으로 된 일목요연한 표로 정리하여 범죄 실행의 회상 및 환상을 보강하면서 범행 일지에서 “경찰, 바보 같은 녀석들. 전국에 수배한다고... 내가 스스로 자수하기 전에는 절대 잡지 못한다.”며 수사 기관의 움직임을 파악한 다음 이를 비웃고 있다.

5) 자수

그는 최초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꾸어 다른 사람을 무차별 살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여건이 여의치 않자 자수하기로 결심하였으며 ... 그가 자수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살하러가기 위해 범행에 쓰인 택시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방송에서 내가 3명을 죽였다고 보도했다. 내가 죽인 사람은 2명이라고 밝히고 싶었다” 또한 온은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소식을 들은 27일자 범행 일지에 자수의 변을 쓰고 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자는 결심으로 중부 고속 도로상으로 무작정 차를 몰고 떠나가다 마음을 바꾸어 자수를 결심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자수하겠다는

라 생각하여 삼으로 머리 다리 무릎 약 5~7차례 가격한 후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함.

· 9월13일 밤8시경: 강동구 천호동에서 노모양(22)납치, 김천으로 끌고 가 성폭행

· 9월14일 밤9시경: 송파구 가락동 네거리서 박모양(24)납치, 살해 후 15일 새벽 김천 부근 경부고속도로에 유기

32) 범행 장소에 따라 분류 시에는 본 사건은 체계적 범죄로 구분될 수 있다.

마음 변하지 않기를....”

자수 동기와 관련, “언론을 통해 얼굴이 알려져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다고 판단, 자수 하게 됐다.” 그런가 하면 “나의 행동이 세상에 공개되면 지존파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나 자신을 철저히 파괴해 살인마로 변신하겠다”고 적어 놓기도 했다

이러한 행동을 분석해 볼 때, 자수를 하게 되면 자기도 극형에 처해 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수를 강행한다는 것은 프로이드가 언급한 “원초아의 에너지가 선천적 요구인 무의식적 본능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원초아를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으로 구분하면서 죽음의 본능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을 때는 주로 자기 파괴나 자살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향해 있을 때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은 자신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언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3. 기타 언행 분석

온이 범행 과정 또는 범행 이후 보인 언행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여성과 관련된 언행

젊은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범행이 쉽기 때문이다. 성 폭행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또 지난 79년부터 같이 살던 여자가 80년에 억울하게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서 도망쳤다. 여자가 미웠다.” 여성이 남성보다 범행이 쉬운 것 때문에 자신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성을 선택하였으나 단지 성 폭행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 즉 성폭행을 단순히 여성에 대한 성적인 공격으로 국한시키는 의미가 아니고 여성을 지배하거나 여성에 대하여 복수해야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란 온이 같이 동거하던 여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실은 여성 전체에 대한 불신과 보복 심리를 자극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2) 지존파와 관련된 언행

온은 범행 일기에서 「지존파」를 의식한 듯 9월16일~22일 사이 “지존파 살인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기다려라, 꼭 나의 목적을 달성해 이 부문 세계 제일이 되리라. 살해 목표 인원 38명, 현재 2명 살해함, 36명 남음. * 목표 인원 초과될 수 있음. 50명으로 변경될 수 있

음.” “이 부분에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 “어쩌면 이 글로 인해 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훗날 수사 당국에 이 범행일지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일기 작성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온은 박주윤양의 살해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 강동구 천호동의 모 여관에서 은신하는 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렇게 또다시 부상으로 인하여 행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답답하다. 앞으로 4~5일은 못 하겠지. 철저한 준비를 하여 하루빨리 목표 달성을 이루자.” “94년 9월23일 밤 9시뉴스 지존파 지존파”라고 적어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왜 서초서로 자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존파가 그곳에서 조사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온은 시체 발굴 작업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추석 때 지존파의 범죄 내용을 보도를 통해 보았다”며 “나도 그들 못지 않으므로 합류해 범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온의 행동은 아들러가 설명한 인간의 공통적인 기본 동기 즉 열등감에 기초한 ‘우월애의 추구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열등 콤플렉스를 보상하기 위해 인간은 우월감, 충족감 및 권력감을 성취하게 해 주는 개인적 목표를 설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적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온은 자신이 체포되고 난 이후 자신의 행동이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여 치밀하게 범행일지를 기록한 다든지,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독려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을 지배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일단 목표가 선택되고 나면 모든 개인의 행동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방향 지워지며 목표를 향한 투쟁은 인생의 반동력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온은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설정한 일반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방법인 연쇄 살인을 함으로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 방면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투쟁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목표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지존파에 대해서 지존파가 조사 받고 있던 서초 경찰서에 자수하는 등 경쟁 의식을 가진 행동 자신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개인의 발전 목표인 연쇄 살인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라는 것이 자신이 소속된 주관적 범죄 문화권 즉 환경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3)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언행

9월 25일자 일기 “지금 나는 사람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괴물인가?”

자신을 스스로 사람, 인간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짐승, 괴물 즉 선과 악의 대립적 형태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행동과 내면적인 양심 사이에서 심하게 갈등하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공판 기간동안 자신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언행

1심 공판때 변호인이 사형 제도 폐지를 역설하자 “지금까지 변호인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합니다.” 그리고 최후진술을 통해 “나의 무자비한 행동으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나 같은 흉악범은 사형에 처해야 또 다른 흉악범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선변호인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가로막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진술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자기 파괴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또한 옴은 인간을 합리적-비합리적 범주로 구분하였는데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사고와 감정의 심리적 기능에 의해 조절하며 의사 결정 시에도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해 지배되고 정서적 요인과 가치판단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온과 같은 비합리적인 사람은 감각이나 직관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사람의 심리를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범뢰자가 이미 처형된 제한된 정보 조건 하에서 그의 범뢰 행위를 배경과 동기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동기 없는 무동기적 범뢰 피해자 선택은 있을지언정 동기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 이번에 살피본 온보현의 범뢰 행동에 대해 그의 성장 배경과 부모와의 관계, 여성관 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세계관 등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나 그의 동기가 어떠한가던 간에 범뢰심리학적 접근의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자신의 언행을 스스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것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다. 물론 그의 그러한 언행은 과장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그러한 행동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일 이러한 기록이나 자신의 언행에 대한 개인적 표현의 시도가 없었다면 이나마 범죄심리학적인 접근이 불가능했을지는도 모른다. 아마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면담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연쇄살인범 등의 범죄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학문적 접근을 위해 일부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중 범죄자에 대한 면담이나 연구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점차 광폭화, 무동기적 연쇄 살인 경향이나 모방 범죄가 점차적 확산되어 가는 범죄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쇄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무차별적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만이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될 것을 보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기 외. (2000). 「심리학 개론」, 서울: 양서원.
- 김상희 외. (1992).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91-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성진. (2001). 「범죄심리학」, 서울: 도서출판 동인.
- 김양희. (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 출판부.
- 이상현. (1994). 「범죄심리학」, 서울: 법문사.
- Henry Gleitman, 장현갑 외 역. (1999). 「심리학입문」, 서울: 시그마프레스.
- 존 더글러스, 마크 올세이커, 이종인 역. (1995). 「마음의 사냥꾼」, 서울: 김영사.
- 클린 윌슨 외. (1990). 「현대 살인 백과」, 서울: 범우사.
- 홍성열. (1995). 「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국 가족 학회. (1995). 「한국 가족 문제-전망과 진단」,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조선일보, 1994. 9. 28.
- Berg and Fox, "Factors in Homicide Committed by 200 Mal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47. 8.
- Brent Turvey, (2002). *Criminal Profiling, An Introduction to Behavioral Evidence Analysis Second Edition*: Academic Press.
- Braithwaite, J. Inequality, (1979). *Crime and Public Polic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Loftin, C., & Hill, R. (1974). *Regional subculture and homicide: An examination of the Gastil-Hackney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 Maume, D. J. (1989). *Inequality and metropolitan rape rate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Justice Quarterly*.
- Messner, S. F., & Tardiff, K. (1986). *Economic inequality and levels of homicide; An analysis of urban neighborhoods*. *Criminology*.

ABSTRACT

Criminal Psychological Analysis of Serial Killer:

Focused Study on On Bo Hyun's Women Kidnapping and Murder Case

by Yoon-Sung Oh

The Serial murder is a serious social phenomenon that gives a shock to community and society, because of it's habituate and scheme. We could identify a happening of serial killing crime at Western society, especially in U. S, but hardly to find many cases in Korea except some of cases.

We can easily prospect the happening of serial killing crime at Korea in the future, at least it exists that home and social disorganization cause by divorcing and hasty economic development. There will be a reserve criminal who have distorted personality effected by undesirable surrounding, therefore he may become a serial murder.

This study examines criminal psychological analysis of On Bo Hwan's serial murder case in 1994 at Korea, according to criminal records and press report and his statement and confession. This paper also show his domestic background and growing atmosphere and human relation between his parents.